

# 22대 시작부터 극한 대립... '사상 최악' 국회 우려

대정부질문서 28명 발언권 없어  
개원식 무제한 연기 '초유 사태'  
'단독 처리-거부권-재의결' 반복  
야권 탄핵 주도에 與 강경 대응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전날 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 처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의 극한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벌써부터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5번째 순서였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발언으로 멈춰섰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틀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면서 3일 일정의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여야 의원 33명 중 28명이 발언권을 잃



제22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개원식 마저 연기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뉴스시스

었다. 28명 중에는 15명이 초선 의원이었다.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의 기능이

정정으로 상실됐다.

여야가 합의했던 대정부질문은 파행으로 끝났고, 8~9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의 재표결은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21대 국회처럼 '거야 입법 독주→여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로 이어지는 여야 대치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폭풍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버리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

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의 탄핵과 여당의 강경 대응 역시 정쟁으로 가는 또다른 길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연쇄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심사까지 '탄핵 전선'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은 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공작'"이라며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대로라면 제헌절인 오는 17일 이전에도 개원식을 열지 못할 수 있다면서 22대 국회 역시 갈등과 파행으로 점철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던 21대 국회 후반기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광주 제2호 민간정원에 동곡동 '꿀벌정원'

전국 유일 곤충 주제 민간정원  
수목·초화류 등 160만본 식재

'꿀벌정원'이 광주시민간정원 제2호에 등록됐다.

광주시는 광산구 동곡동 동곡로에 소재한 '꿀벌정원'을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꿀벌을 주제로 조성된 '꿀벌정원'은 지난 5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인증제도 검토를 거쳐 광주시에 등록 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꿀벌정원'은 총 1만6348㎡ 면적에 키 큰나무 47종, 키작은나무 35종, 만경목 4종 등 수목 86종과 초화류 95종 등 약 160만본이 식재돼 있다. 꿀벌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밀

원식물로 채워져 있다.

'꿀벌정원'은 로열 하이브, 에코 하이브, 스위트 하이브, 블라썸 하이브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로열 하이브(Royal Hive Zone) 정원'은 꿀벌정원의 후원(後園)으로 평지보다 높게 언덕 형태로 조성됐으며, 연못·계류 등의 수공간을 배치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에코 하이브(Eco Hive Zone) 정원'은 벌꿀의 생애, 벌꿀의 소통방법 등 생태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다. 55년간 양봉업에 종사한 정원주의 꿀벌에 대한 노하우가 스며든 공간으로, 아이와 함께 꿀벌의 생태를 감상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학습하기에 효율적인 동선으로 구성됐다.

'스위트 하이브(Sweet Hive Zone) 정원'은 카페와 어우러진 유럽형 자연풍경식 정원양식에 기반한 이국적인 시설물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



광주시 민간정원 제2호에 등록된 광산구 동곡동 '꿀벌정원'.

광주시 제공

'블라썸 하이브(Blossom Hive Zone) 정원'은 밀원수종을 중심으로 꿀벌들이 꿀을 찾아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광주시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꿀벌정원'은 전국

유일의 곤충 주제 민간정원이다"며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주제의 민간정원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도록 발굴하고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

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이다. 2015년 국내 첫 등록을 시작으로 2023년말 현재 전국 총 131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돼 있다. 광주시는 2023년 3월 제1호 민간정원 '휴심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등록이다. 최권범 기자

## 본핏동물병원이 광주본동물병원으로 상호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본핏동물병원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뜻으로 애완의 의미인 핏을 삭제하고  
광주본동물병원으로 새롭게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착한마음' '착한진료' 반려동물의 근본을 치료하고  
반려동물을 본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호만 변경되며 의료진, 전화번호, 위치는 동일합니다

디스크 / 슬개골 / 호르몬 질환 전문



 **광주본동물병원**  
GWANGJU BON ANIMAL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0 T. 062-447-8575

